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8년 표어 §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요 3:16-17, 창 12:3. 마 9:35)

†행동지침†

- 1.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 2. 계대를 잇는 믿음의 가정들의 보편적 공동체
- 3.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적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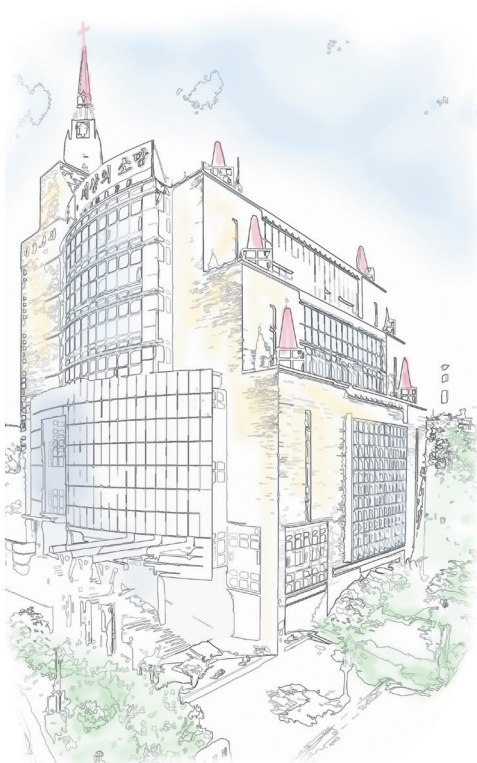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태양을 머물게 한 사람 I

(여호수아 10:1~15)

이종윤 원로목사



미국에서 일하는 중국인 부흥사 Leland Wong 목사는 그의 편지지 위에 이런 말을 써 놓고 사용한 다.

“태양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수10:13)
물 위에 떠오르게 하신 하나님(왕하6:6)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다
(시48:14)”

도끼가 정말 물 위에 떠오를 수 있을까? 회전하 던 태양이 정말 멈출 수 있을까?

태양이 멈춘다는 것은 단순한 기적 여부를 떠나 엄청난 문제를 야기한다. 자동차가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급정거하면 큰 충격을 받게 된다. 하물며 태양계의 모든 움직임이 멈출 경우 상상기도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다. 성경은 더 이상 설명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시 지구에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다. 정말 태양이 머문 것인지 즉 기적이 사실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은유 적 표현인지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어쨌든 여호수아 때에 기브온에서 태양과 달이 머물렀다는 것은 우주 개벽 이후 대 사건임에 틀림없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바 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소문을 듣고 화친을 청 해왔다. 여호수아는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하나 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다. 3일 후 그 조약이 잘 못된 것을 깨달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조약 을 깨뜨릴 수가 없었다. 그 사건으로 여호수아는 사 실상 가나안 정복의 지름길을 놓친 셈이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다.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 왕을 포함한 아모 리의 다섯 왕들이 동맹을 하여 기브온 사람들이 원 병을 요청했다. 여호수아는 즉시 군대를 동원하여 저들과 마주치게 했지만 적이 워낙 강군인지라 두 려움에 빠졌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 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 라”(8절).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크게 이 기게 하셨다(10절). 그들이 도망칠 때 하나님이 큰 우박을 내리시고 그때 우박으로 죽은 자가 여호수 아의 군대의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11절). 이 지 역에 큰 우박이 내렸다는 것은 큰 이변 중 하나였 다.

큰 우박이 내리니 하늘은 먹구름장으로 덮였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진격을 계속할 수 없었다. 여호 수아는 가나안 남방 동맹군을 진멸할 수 없었다. 그 러나 여호수아는 그 전쟁이 가나안 남방 동맹군을 진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알았다. 이미 날이 저물고 밤이 되면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음을 깨

달은 여호수아는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여 요청했 다. 그리고 소리치기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 다”라고 했다(12절). 그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적에게 원수 갚도록 하 였다(13절).

이 같은 기이한 사건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 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14절)

I. 사실인가, 느낌인가

기브온에서 일어난 사건은 무엇인가? 태양이 머 물렀다면 지구는 어떻게 된 것인가? 성경이 가르치 시려 한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

태양과 달이 머물렀다는 것은 우선 네 가지 가능 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시적 표현이라는 해석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고 저녁에 해가 진다는 것 은 과학적 표현이 아니다. 태양은 떠오르거나 지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기 때 문에 그렇게 느낄 뿐이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 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삿5:20).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연까지 도 이용하신다는 시적 표현이다.

전쟁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어둠이 덮히 는 밤이 오게 되니 여호수아로서는 안타깝지만 했 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스라엘 군대에게 힘을 주사 짧은 시간에 하루 종일 싸운 분량만큼의 큰 전과를 올리게 했다는 것이다.

물론 성경에 시적인 표현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을 이 같은 느낌이나 시적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른 해석법이 아니다. 이미 우박의 기적이 있었다. 만일 태양과 달이 머문 것이 시적 표현이라면 우박 은 무엇인가?

2. 실제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셨다고보다는 일광 시간을 길게 연장시키셨다는 해석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의심 할 필요가 없다. 프란시스 슈퍼((Francis Schaeffer) 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일광 시간을 단순히 길게 하셨다고 주장한다. 마치 여름날 낮 시간이 겨 울철보다 긴 것처럼 그리고 북극 지방에서는 여름 철엔 오후 10시가 가까워도 책을 읽을 만큼 낮의 길 이가 길 듯이 해가 지지 않으므로 일광 시간을 조정 하신 것이라는 해석을 한다.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마친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지난 7월 7일 사랑부를 시작으로 그간 진행되었던 2018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오는 8월 15일 청년부 수련회로 끝을 맺는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간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은혜롭게 진행된 것과 성도들의 믿음 이 크게 성장된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여 힘차게 후반기를 향해 달려가기바란다.

부서	일정	장소	주 제	교역자
청년1부	8월 13일(월) -15일(수)	아가페타운	"치유하시는 하나님" (열왕기하 20:5)	심우진 목사
청년2부				
에바다부	8월 11일(토)	서울교회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요 3:16-17, 창 12:3, 마9:35)	서명철 목사
장로 수련회	8월 14일 (화)	아가페타운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유은경 김선우·이성희 김진숙 김순진 이선희 무명 2인
농촌전도대 교회학교팀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교육 1국 여름 성경학교 이모저모



비전2020 - 육군 제3보병사단 진중세례식

군선교의 침병으로!

홍창훈 집사 (비전2020임원)

7월 28일 토요일 오전 6시, 이날은 강원도 철원군 소재 제3보병사단 23연대 신병훈련 교육대 훈련생들을 위한 진중세례식을 하는 날입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국가를 위해 군 복무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인 젊은 청년들에게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을 영접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과 약속하는 중요한 예식의 날입니다. 그동안 서울교회의 비전 2020팀은 이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여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날도 본부장님(최광성 장로), 조원형 목사님을 포함하여 행사를 위해 협찬과 격려차 참석하신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총 35분이 참여해 주셔서 이 행사에 힘이 됐습니다.

안보교육과 견학 후 오늘의 세례식 행사를 위

해 신병교육대 교회인 십자군 교회에서 1대대소속 200여명의 훈련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회에서 준비한 특송을 시작으로 차분한 분위기속에서 은혜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조원형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세례" 라는 설교 제목으로 세례의 참 목적과 세례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영접하고 참다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됨으로서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확고한 신앙심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장성남 목사님이 주도하시는 세례의식은 교회에서 준비한 찬송연주가 은은하게 퍼지는 가운데 차분하면서도 엄숙하게 진행되었고 130명에 훈련병들이 세례를 받고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성찬식도 질서 있고 은혜롭게 잘 치러졌습니다.

모든 예식이 끝나고 서울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참석한 훈련병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병사들이 군복무 중에도 믿음의 신앙을 간직하고 전역 후에도 사회에 나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서 어디에 있든지 책임있고 정직하며 정의로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비전2020본부에서는 군선교의 침병으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모든 군 복음화에 열정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 교회의 여러 어려운 여건에서도 관심과 격려와 협찬을 해주신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행사준비에 힘쓰신 성례부, 도고팀과 비전2020 임역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18 여름 수련회 초대의 글

치유하시는 하나님

오주명 집사 (청년2부 부회장)

꼬마 아이가 달려가다 넘어졌습니다. 이내 씩씩하게 일어섰지만 점점 따끔하게 쓰러오는 손바닥의 감각에, 무릎에 피어가는 핏물에, 아이는 덜컥 겁에 질려 그만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까운 소독약과 보드라운 연고, 커다란 반창고가 되려 서러워 더 크게 우는 꼬마를 위로해 준 것은, 상처를 조심스레 어루만져주는 조글조글하지만 따뜻한 할머니의 손이었습니다.

교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삶은 녹록치 않습니다. 긴긴 여정에 주고받은 큰고 작은 상처들에 쓰라

리고 앞으로 더 넘어야 할 언덕을 보니 겁이 덜컥 납니다. 휴식으로, 사람들로, 세상으로 도망쳐 보았지만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않아 되려 서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러린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따스하고 인자한 손길을 필요합니다. 이런 바램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서울교회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아가페타운에서 열립니다.

복잡한 일상에서 한걸음 물러나, 오롯이 주님께

폭 빠져들 수 있는 단비와 같은 시간. 성경말씀을 보다 깊이 배우고,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면서, 깊은 기도도 내 무거웠던 짐과 아픈 상처를 주님께 내려놓는 감사의 시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서울교회의 청년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한여름의 싱그러움 속에서 누리는 주님과와의 특별한 휴가에 청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중략)...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낮게 하리니 네가 삼 일 만에 여호와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열왕기하 20:5 하반절)

2018 여름 수련회 초대의 글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

박예옥 집사 (에바다부 교사)

교회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으면서 과연 무엇이 선한 것인지,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고 계시는지 불평이 찾아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의 섭리하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고통받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하나님께서 곧

우리의 옳음을 증명하실 것을 믿고 감당하려 합니다. 저희 에바다부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이 시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큰 복임을 믿으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굳건한 믿음과 주님께 순종하며 십자가 군병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8월 11일 토요일 1일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께서 봉사하시는 모든 부서도 힘드시겠지만, 특히 저희 에바다부는 부서의 모든 기초가 무너지며 과연 존재가 가능할지 의심되는 위기의 순간까지 있었으나 그 시기를 잘 버

티며 서로 격려하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며 주어진 역할에 충실히 앞만 보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많은 성도님들께서 사랑과 관심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성도님들의 사랑에 빛진 자들로서 더욱 헌신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미약한 저희 부서이지만,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배우고 말씀대로 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성경2독을 시작하며 ②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북분열 II

김동진 집사 (3교구)

사사들이 활동하던 사사시대를 이른바 '이스라엘의 암흑시대' 라고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 없이 이방신과 우상숭배 또는 자기 믿고 싶은대로 믿는 혼란과 고통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한 너무나 익숙하고 유명한 구절이 이것이다.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 (사사기 17: 6, 21: 25)

** 신앙적 상황 그리고 엘리와 사무엘

백성들에게는 외부적인 정치 상황이나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고통과 어려움은 그래도 참고 이겨 나갈 수가 있었으나 내부적으로 신앙적 무능과 부패에 따른 실망과 분노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앙적 실망과 분노란 뜻밖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최고의 종교지도자였던 엘리와 사무엘에 대한 것이었다.

사사시대 마지막 시기에 사사이자 대제사장이자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은 두 사람으로 엘리와 사무엘인데 그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 엘리는 사무엘의 스승이자 실로에서 대제사장으로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치리한 유능한 인물이었다 (사무엘상 4:18)

그러나 그의 뛰어난 공적 활동과는 달리 사생활에 있어서는 가정교육이 형편없어 두 명의 자식들은 그들의 행실을 보자면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커 성경 전문을 인용하기로 한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 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와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 (사무엘상 2:12-17)

이러한 그들의 악행과 이를 방치한 엘리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책망하기에 이르고 형벌을 경고하였는데 한 마디로 집안에 대가 끊기고 멸절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 (사무엘상 2:29-32)

결국 두 아들 흡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는 뜻하지 않게 죽음을 맞게 되는데 두 아들의 경우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끊임없이 괴롭히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패하자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고 어처구니 없게도 백성들이 엘리의 두 아들과 함께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고 전투에 나갔으나 역시 패하여 두 아들은 전사하였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패전과 두 아들의 전사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비보를 전해들은 엘리는 앉아 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고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도 갑작스런 출산 후 죽어가며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였다.

엘리의 후손 중에서 다윗 때 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아비야달도 솔로몬 왕에 의해 그 직을 박탈당함으로 엘리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예고는 성취되며 끝이 났다.

등 정

■ 금주의 식사: 소고기 카레

손태현 집사 박혜옥 집사 가정 (자녀결혼을 감사드리며)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에바다부, 청년1, 2부 여름수련회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수련회 되게 하옵소서.
2. 각종 송사건을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진실하고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3. 우리나라에 거짓과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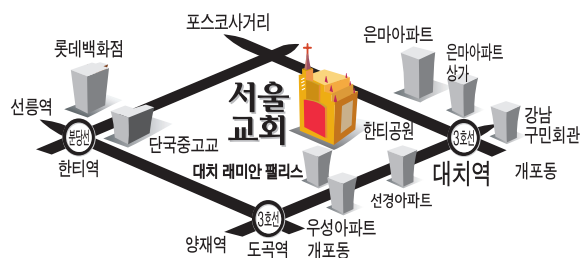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8월5일	주일	사 36-38		수 8-13	
8월6일	월	사 39-42		수 14-19	
8월7일	화	사 43-45		수 20-24	
8월8일	수	사 46-49		삿 1-6	
8월9일	목	사 50-56		삿 7-11	
8월10일	금	사 57-62		삿 12-18	
8월11일	토	사 63-66		삿 19-21, 룿 1-4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